사 설

불교생협운동에 거는 기대

농촌지역 불자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도시지역 불자들에게 연결해주는 불교생산협동조합운동은 불교가 생명과 환경문제에 접근하는 적절한 실천적인 대안이다. 남원 실상사의 불교귀농학교와 조계사 봉은사 석왕사 등 20여개의 사찰과 단체가 중심이 되어 불교생협학교를 개설하고 '도농공동체'를 추진하고 있는 이 운동은 불교의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 창출이라는 점에서도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이 운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사찰이 중심이 되어 도시와 농촌지역 불자들을 농업생산물을 매개로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산물 소비구조는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구조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농민은 피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헐값에 출하하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모순구조였다. 농민은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 작물에 농약을 과다살포하고, 도시소비자는 아무 대책없이 그것을 소비해야 했다. 이것은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유통구조였다.

불교생협운동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하자는 생명운동이자 환경운동이다. 농민들은 유기농법에 의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생협을 통해 좋은 값에 공급하고, 도시주민은 건강한 농산물을 싼값에 공급받자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찰은 이 사업을 사회운동, 또는 새로운 생명살리기운동 차원에서 믿을 수 있는 중개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농촌이나 도시주민 모두에게 경제적, 환경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어서 범불교적으로 전개해 볼만한 운동이다.

그러나 이 운동이 성공하자면 몇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맞아야 하고 중개를 맡는 농촌이나 도시지역 생협들이 지역주민과 공동체적 연대감을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교가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사찰은 전통적으로 농촌을 기반으로 입지하고 있어서 지역주민과 매우 친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포교부진으로 서양종교에 많이 잠식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영향력이라는 면에서 여전히 우위에 있다.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나선다면 농촌공동체의 중심에 위치할 수 있다. 또 생협을 중심으로 하는 도농공동체를 추진할 경우 도시지역 불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운동은 노력 여하에 따라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이템이다.

이 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예상되는 효과는 매우 크다. 우선 사찰이 나서서 농촌과 도시지역 주민을 경제적 생명적 이익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어서 종교의 사회적 역할의 측면에서 만족할만한 성과가 기대된다.

또 많은 사람들이 사찰이 중심이 되는 생협을 통해 도농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므로 해서 그 등안 취약해진 포교기반을 확충한다는 효과가 생긴다. 이런 차원에서 불교생협운동이 몇몇 사찰이나 단체만이 나서야 할 일이 아니다. 불교계 전체가 나서서 생협운동을 하나의 새로운 종교운동, 또는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실천해야 할 과제라는 생각이다.

불교는 지금까지 시주자인 불자들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불교는 안타깝게도 나태와 무책임, 나아가서는 실망스러운 분쟁까지 거듭하면서 제 역할을 못해왔다. 이런 현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불교생협운동을 반드시 성공시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선암사 30년새 불화 54점 도난

태고종 '후불탱화 복원추진위' 결성
조계종·태고종 공동책임론 대두
"경내 창고에 보관" 선암사 도난 부정

사찰 소유권을 둘러싸고 조계종과 태고종이 대립해온 전남 순천 선암사(주지 인곡스님)에서 30여년간 불화 54점이 도난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태고종 총무원이 7일 '선암사 후불탱화 복원불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등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문화재전문가들은 69년부터 99년까지 선암사에서 도난당한 불화의 수를 54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수치는 한국고고미술연구소에서 발간한 〈미술사학지-제2호〉와 성보문화재연구원에서 간행한 〈한국의 불화-선암사편〉에 수록된 불화를 비교한 통계다. 선암사가 69년까지 불화 125점을 소장하고 있었지만, 현재 71점만을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태고종 혜우스님(선암사 재무)은 "불화 54점 도난설은 낭설일 뿐이다. 올해 말 성보박물관을 완공하면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불화를 보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암사는 지난해 12월부터 108평 규모의 성보박물관 짓고 있다.

그러나 선암사는 공사비 16억원중 3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성보박물관 완공시기는 2천년까지 늦어질 전망이다. 불화 공개가 늦어진 만큼 '54점 도난설'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성보도난에 대해 세민스님(조계종측 선암사 주지)은 "주인이 집을 지키지 않는 현실에 기인한다"며 "성보를 보존할 기구를 운영하는 조계종이 선암사를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화재전문가들은 조계종이 '선암사' 관리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성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계종에서는 선암사 소장 성보에 대한 조사를 한일이 없기 때문이다. 선암사 불화 도난 사건에 대해 조계종과 태고종의 공동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불화〉를 펴낸 범하스님은 "선암사 불화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조계종과 태고종이 합심해 현재 남아있는 불화에 대해 문화재 지정 절차를 밟은 것이 최상책"이라고 강조했다. 선암사가 소장하고 있는 지정문화재 18점 가운데 불화는 조선시대에 제작된 괘불(유형문화재 27호) 1점뿐이다. 오증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선암사 도난 불화 목록

불화명	제작연대	불화명	제작연대
불조전 칠불탱	1702년	진영각 계음당진영	연대미상
불조전 53불탱(3점)	1702년	진영각 동악당재인대선사진영	1743년
대웅전 석가모니후불탱	1702년	진영각 환성당대선사진영	연대미상
괘불	연대미상	진영각 계봉당대화상존영	연대미상
팔상전 화엄탱	1780년	진영각 향서당담휘진영	연대미상
팔상전 천불탱	1907년	진영각 청하당대선사진영	연대미상
팔상전 팔상탱(8점)	1708년	진영각 청담당이현대화상진영	연대미상
팔상전 33조사탱(4점)	1753년	진영각 연대당조영대선사진영	연대미상
각황전 아미타탱	1751년	진영각 상월당대화상진영	연대미상
나한전 삼불탱	1802년	진영각 홍곡당정안대사진영	연대미상
명부전 시왕탱(2점)	연대미상	진영각 상월당대화상진영	1990년
삼성각 칠성탱	1895년	진영각 정파당대선사진영	연대미상
염불당 독성탱	1879년	진영각 월암대화상진영	연대미상
비로암 신중탱	1780년	진영각 설월당대화상진영	연대미상
향로암 신중탱	1819년	진영각 문월당대선사진영	연대미상
노전 채금병풍(3점)	연대미상	진영각 벽파당찬영대선사진영	연대미상
범자병풍	1902년	진영각 청공당대화상각훤진영	연대미상
진영각 소요당대화상진영	1832년	진영각 완담근일대화상진영	연대미상
진영각 첨굉당대선사진영	연대미상	진영각 환월당대종사진영	연대미상

도굴범에 1억 수뢰 문화재단속반장 구속

전 문화관광부 문화재사범 단속반장이 재직 당시 문화재 매매업자와 도굴범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아온 혐의로 검찰에 불잡혔다.

서울지검 형사5부 최용순검사는 8일 1억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문화관광부 문화재관리국 6급 공무원 김무준(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퇴직한 김씨는 단속반장으로 일하던 94년 11월부터 대전에서 문화재 매매를 해오던 손수석(64·구속중)씨 등 3명에게 문화재 거래정보를 제공하고 1억1천40만원을 받은 혐의다.

오종욱 기자

본사주지 권한확대 종회 건의

조계종 본사주지회의…성보도난 대책도 논의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의장 고산)는 7일 불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본사주지 권한확대를 중앙종회에 제안키로 결의했다.

이같은 결의는 중원스님(관음사 주지)은 "본사주지들이 각종 법령의 제정과 예산 편성, 종책결정 때 종헌·종법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

중원스님은 "본사주지들 사이에서 이같은 논의가 있었다"고 밝혀 본사주지 대다수의 의견임을 시사했다. 중원스님은 또 "지난 종단사태 때 본사주지들의 역할이 미흡했던 것도 권한이 미약했기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결의는 94년 종헌·종법을 개정하며 본사주지의 종회의원 겸직금지 등을 통해 권한을 축소한 것에 배치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종회의원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어서 이후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승가대학 정원 하한선을 현행 30명에서 10명으로 하향조정키로 결의했다. 이로써 가인가된 수덕사 불국사 화엄사 직지사 쌍계사 등 5개 승가대학의 유지가 가능하게 됐다. 회의에서는 또 성보도난 방지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미신고된 도난성보 목록을 총무원에 제출키로 했다.

정성운 기자

행자교육 이수자중 70% 기본교육기관 입학 기피

조계종 교육원 자료

조계종 사미·사미니의 기본교육기관 입학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 95년 이후 행자교육을 이수하고도 종단의 기본교육기관에 입학하지 않은 사미(니)가 행자교육 이수자의 절반이 훨씬 넘는(69.8%) 1천1백9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원에 따르면, 95~98년 기간 동안 시행된 8~15기 행자교육 이수자는 1천7백4명이다.

교육원(원장)은 7일 교구본사주지회의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8~15기 행자교육 이수자 중 기본교육기관 미입학자 본사별 현황'에 따르면, 사미는 452명, 사미니는 738명으로 모두 1천1백90명이다.

교육원은 이날 "각 교구본사에 기본교육기관 미입학자 명단을 통보했다"며 본사주지들에게 사미(니)에 대한 기본교육기관 입학을 독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원은 은사스님들의 시봉, 토굴생활 등의 이유로 기본교육기관에 입학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포교연구실 문서포교 활발

'포교방법론' '상담자료집' 등 잇달아 출간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화암스님)이 최근 포교·수행·교육관련 교재와 자료집을 잇달아 발간하고 있어 활발한 문서포교가 펼쳐지고 있다.

최근 발간된 군장병·병원·실직자·청소년·사찰문화재 홍보용 등 5권의 포교소책자에 이은 '재소자용' 소책자를 비롯 〈포교방법 개발을 위한 의식조사 자료집〉 〈수행지침서〉 〈수선교본〉 〈불교상담 자료집〉 등이 이달중에 출간되며, 〈중고등 교과서 불교관련 자료집〉 및 〈포교론〉이 5, 6월에 잇달아 발간된다.

12일 발간된 〈포교방법 개발을 위한 의식조사 자료집〉은 지난해 10~11월 스님 포교사 등 포교 종사자 1천17명, 신도회 회원 등 포교수요자 8백81명을 대상으로 불자들의 신행 및 포교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것.

또 〈수행지침서〉와 〈재가자를 위한 수선교본〉은 재가자를 위한 수행 안내서로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불교상담 자료집〉은 상담사례의 유형 분석 및 통계자료 등을 담은 최초의 불교상담이론 교재가 될 전망이다. 〈중·고등 교과서 불교관련 자료집〉은 종교편향 및 불교 왜곡의 우려가 있는 교과서 내용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와 공동으로 제작중인 〈포교론〉은 중앙승가대 및 동국대 불교학부 등의 교재로 사용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통도사 지분' 등 논의 btn특위 본격 활동

조계종 불교TV 정상화특위(위원장 정휴)는 7일 회의를 열고 불교TV 대표이사 신허스님 등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14일 현장방문을 벌이기로 했다. 신허스님은 이날 보고에서 "현재 부채 및 미지급금이 70억원에 이르나, 조만간 급한 부채를 갚겠다는 후원자가 2~3명 나올 것"이라며 통도사측의 경영권 계속유지 의사를 비쳤다.

김주일 기자

승가대 김포학사 특위 위원장에 종하스님

조계종 중앙종회 김포학사대책특별위원회는 8일 제1차 회의를 열고, 특위위원장에 종하스님(관음사 주지)을 선출했다.

또 위원장 종하스님을 비롯 원택, 계성, 정휴, 영담, 대원스님, 승가대 법인사무처장(공석)으로 7인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특위는 소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이양, 소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김포학사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보안강화

봉 전국신도회 제18대 선진규회장 및 임원 취임법회 축

불자 여러분!

한국불교의 중흥과 대중포교는 출가와 재가의 균형된 발전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에게 아프게 비춰진 불교계의 모습에 참회하며 이제 전국신도회는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여
대승불교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기 위해 임원 취임법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평소 전국 신도회를 아껴 주시는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일 시 : 1999년 4월 24일(토) 오후 2시
■ 장 소 : 불교방송국 대법당

사단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전국신도회 제18대 회장 취임법회 준비위원회
초 청 인 권노갑 김양수 노무현 유주향 이한동 이홍세 한정섭 황명수
준비위원장 김재일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전국신도회 ☎ 02)732-7272~5 FAX 02)732-7275

임시총회 전국대의원 소집공고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전국신도회 대의원 임시 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바랍니다.

▶ 일 시 : 1999년 4월 24일(토) 14:00
▶ 장 소 : 불교방송국 대법당
▶ 내 용 : 1. 정관개정의 건
2. 임원선출보고의 건
3. 기타사항

사단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전국신도회
대의원 의장 선 진 규